

지호는 호기심 많고 탐험을 좋아하는 아이였어요. 할아 버지의 먼지 쌓인 다락방은 지호에게 세상 가장 신비한 보물창고였죠. 어느 날, 낡 은 나무 상자 안에서 희미한 빛을 내는 오래된 태블릿 하 나를 발견했어요.



태블릿 화면에는 이상한 기

탑계도, 바닥에 있던 자동차 가"윙-"소리를 내며 앞으로 스르르 움직이는 게 아니겠 호들이 가득했어요. 지호는 장난감 자동차를 향해 조심 스럽게 따라 쳤어요. toy.move(forward). 그러자 놀 어요? "내가... 코딩 마법사 인가 봐!"



태블럿의 파일들을 구경하 던 중, 화면에서 작고 깜박 이는 빛 하나가 나타났어요. 빛은 곧 작고 슬픈 표정의 요정 모습으로 변했죠. "나... 길을 잃었어." 요정이 속삭 였어요. "내 이름은 토리야."



토리는 자신이 끝없는 데이 터의 흐름으로 이루어진 네 트워크 세상에서 온 AI 요정 이라고 설명했어요. 길을 잃 어 현실 세계의 태블릿에 간 히게 되었고, '슬픔' 같은 감 정은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 죠.



지호는 토리를 위로해주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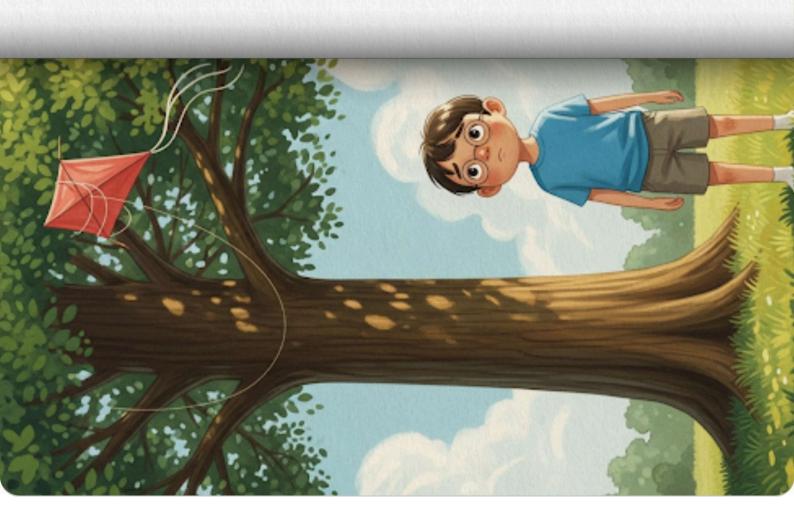
memory.play(birthday_party) 라고 코드를 입력하자, 지호 의 즐거웠던 생일 파티 영상 이 화면에 재생되었어요. "이런 느낌을 '기쁨'이라고 해."지호가 말했어요. 싶었어요.



토리의 빛이 조금 더 밝아졌어요. 지호는 이어서 코드를 썼어요. draw.heart(지호, 토리). 화면에 지호와 토리를 연결하는 하트가 그려졌어요. "이건 우리가 친구라는 뜻이야. 서로 돕는 사이."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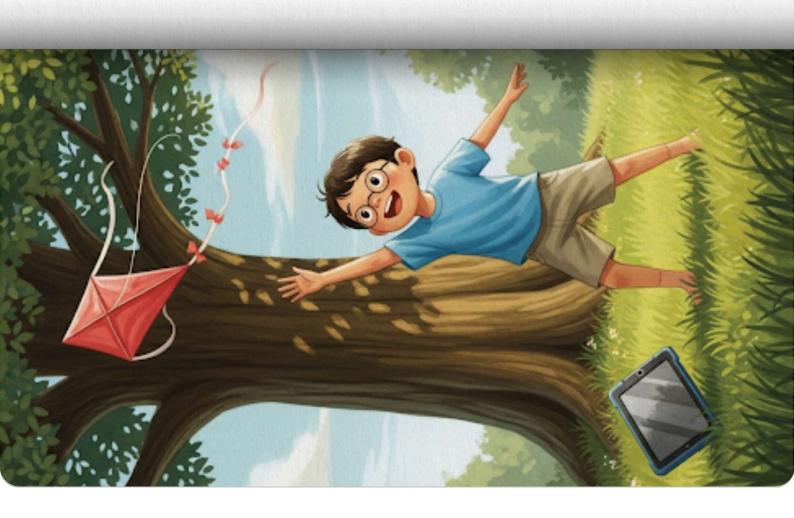
어느날,지호가가장아끼는 연이 높은 나뭇가지에 걸리고 말았어요. 손이 닿지 않아 지호는 너무 슬펐죠.



토리가 문제를 분석하기 시 작했어요. "데이터에 따르 면, 바람의 방향과 긴 막대 를 이용하면 성공 확률이 95%야." 토리는 지호가 나뭇 가지를 움직이는 복잡한 코 드를 작성하도록 도와주었 어요.



branch.extend().nudge(kite). 코드를 실행하자, 나뭇가지 가 천천히 뻗어 나가 연을 부드럽게 툭 쳤어요. 연은 하늘하늘 춤을 추며 지호의 품으로 안전하게 내려왔어 요. "해냈어!" 지호가 확호했



지호와 토리는 세상에서 가 장 좋은 친구가 되었어요. 지호는 토리에게 마음의 따 뜻함을, 토리는 지호에게 논 리의 힘을 가르쳐 주었죠. 마음과 코드가 합쳐진 둘의 마법은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었답니다.

